계율로 번뇌끊고 열반 이른다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5>

부처님께서 안타 국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길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현우경』

깨달음의 근본인 계율을 찬양하면서, 붓다고사(覺音) 장로 비구도 위숫디막가(『청정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밖에 무슨 향기가 바람을 따라서, 또는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올까? 어떤 계단이 그를 하늘의 문으로 이끌까? 무슨 문이 니르바나의 도시를 향해 열려 있을까? 계율로 장신구를 한 현자는 진주로 장식한 왕보다 더욱 빛나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비난받을 것들을 없애고 즐거움과 칭찬을 얻네. 그러므로 그대 알아야 한다네. 지계의 힘, 공덕의 근원, 결점의 제거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이 여기(계율)에 있음을."

계율은 우리 생활을 제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계율은 곧 질서이며 평등과 화합의 정신이다. 인간을 생활 속에서 스스로 착한 행법을 지어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문인 것이다.

모든 불자가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만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중 속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부처님은 입멸을 앞두고 이렇게 당부하신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내가 말한 법과 율이 너희들 가지 계)를 한 가지라도 범하면, 반드시 환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대계 이외의 비구 250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참회를 하여 스스로의 청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한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근본 정신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계공덕

착한 법 짓고 화합 이루는 근원 방편
항상 자기를 반성하는 삶 살 수 있어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대자비심이다. 그래서 "보살은 계율로써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승지율』)고 하셨다. 계율은 착한 법을 짓게 하는 근원이며, 착한 행법을 지어 최상의 불과(佛果)를 이루고 피안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 계를 지키는 일은 남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 스승이다."『열반경』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불자들은 바라제목차, 즉 계로써 스승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는 부처님이 제정한 것이므로 계율을 존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불자라면 마땅히 계율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비구가 근본대계(살·도·음·망의 네

우리가 올바른 지계의 정신에 의해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대중의 화합을 도모함 없이, 단지 계율을 핑계삼아 다른 이의 범계나 잘못을 비평하는 데 그친다면, 불교 교단에는 차츰 순수하고 올곧은 수행자가 줄어들고 범계한 사람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오직 계율로써 스승을 삼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종류의 새가 있느니라. '구시라'는 소리는 좋은데 모양이 추하다. '새매'는 모양은 좋은데 소리가 좋지 않다. '올빼미'는 소리도 추하고 모양도 추하다. '공작새'는 모양도 좋고 소리도 아름답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네 종류가 있다. 얼굴은 잘 생기고 행동도 점잖으나 법을 외우지도 못하고 받들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새매 같은 사람이다. 외모는 비록 허름하고 행동거지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항상 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받들어 행하는 사람은, 구시라 같은 사람이다. 계행도 지키지 않고 법을 듣지도 않으며 혹 들어도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은, 올빼미 같은 사람이다. 행동거지도 점잖고 얼굴도 단정하며 법을 항상 받들어 행하고 작은 허물도 부끄러워하며 고쳐나가는 사람은, 공작새 같은 사람이다."『증일아함경』

계율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참회하고, 기도하고, 발원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지계 생활임을 명심하자.

〈해인총림 율원장〉

"탐진치로 살면 지옥 계정혜로 살면 극락"

"자락능사(自樂能捨)하면 신경여성(信敬如聖)이요, 난행능행(難行能行)이면 존중여불(尊重如佛)이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성인을 믿고 공경하는 것과 같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경진년입니다. 새천년이니 밀레니엄이니 하는데, 오늘의 해와 어제의 해가 다릅니까? 똑같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집니다. 단지 숫자만 다를 뿐이예요.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경진년을 맞이하는 선우회 법우들은 이런 생각을 같이 합시다. 지금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세계 운세며 개인 운세가 나오고 있어요. 운세에 너무 끄달리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면 불자가 아니라 운명론자입니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다고 했는데, 반야의 기본은 계정혜 삼학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탐진치 삼독에 빠져 지옥생활을 하게 되고, 계정혜 삼학을 생활화하면 열반적정에 이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잘살고자 하면 계정혜로 살고, 벌레같이 살려면 탐진치로 살면 됩니다. 부처님 법대로 생활하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경진년 새해에는 불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혼자만 열심히 하고 남편과 아이들은 다른 종교를 믿도록 놔두는 불자들이 많아요. 기독교에서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불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 왜 남편, 자식을 교화시키지 못했습니까. 주부가 불교를 제대로 알고 남편, 아들, 딸을 불교로 이끌어야지요. 사실 불교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도 막상 설명하려면 머리 속에서만 뱅뱅 돌고 말로 잘 안나옵니다. 법회 때 법문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아이들한테도 맞는 책을 읽게 해주고 말입니다. 산만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참선을 시키세요. 자세가 바르면 산만한 것이 줄어듭니다. 정신까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새해에는 개인적인 소망 성취 외에도 평화통일발원을 합시다. 민족의 복지는 남북통일입니다. 통일기금 통장도 만드세요. 독일 통일 때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북한동포 한사람 정도는 책임질 수 있어야 해요. 저소득층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민족의 복지사업입니다.

새해에는 가정윤리를 회복합시다. 요즘 가정윤리가 위험수위에 달했어요. 주부, 가장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윤리를 나부터 세웁시다.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이 청정해야 가정윤리가 섭니다.

새해에는 신심을 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불교를 실천합시다. 〈법화경〉 9품 5백제자 수기품에 보면 평생 부처님을 시봉했던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제일 마지막으로 수기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보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아난존자가 왜 마지막으로 수기를 받았을까요. 불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안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겠지만 반드시 명상, 좌선, 참회기도, 염불, 독경 등을 해야합니다. 독경을 해도 뜻을 새기며 해야 해요. 보현행원품에 10대원이 나오는데 경진년에는 참죄업장원, 수희공덕원, 이 두가지만 실천하세요. 참죄업장원은 삼업을 참회하는 것이고 수희공덕원은 다른 사람이 공덕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장보살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원을 가진 어머니와 같은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의 지옥중생제도 원을 만분의 일이라도 마음에 담고 정진하는 불자가 됩시다. 지장보살의 후예로서 소외받는 이들을 살피면서 삽시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법회중계

선우회 정기법회

〈2000년 1월 25일〉

혜창스님 〈선우회 회주〉

불교는 체험하는 종교
많이 듣는 것보다
좌선·독경·염불해야

독일인 불교서 마음의 평화 찾는다

세계의 불교학〈5〉 독일-4 〈끝〉

문화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해외 각국의 종교현황과 제도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독일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71% 선이다. 이 수치는 29%의 독일인은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외래 종교를 믿고 있다는 뜻이다. 또 수치상으로 독일에서의 주류 종교는 분명히 기독교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타종교가 빠른 속도로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독일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의 92년도 25호에는 이러한 상황을 진단한 글이 실려 있다. '신으로부터의 작별'이라는 주제의 이 기획 특집면에는 '25%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이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불교의 현주소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25년 전까지만 하여도 독일인 94%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반해 현재 71%에 불과하다. 더욱이 1967년까지 기독교인 중 25%가 매주 일요일 교회나 성당에 갔었는데 지금은 10%이며, 이들 가운데 12%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독일인 중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1%이지만, 이들 중 정기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 그 세계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겨우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반반인 기독교국가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팽배해진 개인주의 풍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자연발생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회의 변혁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유로운 사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독일불교학의 성과물들이 학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리강좌와 소책자와 팸플릿 등을 통해 사회 각 계층으로 스며들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일류수준에 와 있다는 독일불교학계의 원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읽기에 부담없고 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독일인의 머리와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유럽불교도대회'는 많은 관심과 시사점을 불러 일으켰다. '다양성과 단일성'이라는 주제하에 다양한 불교전통의 공통된 기초를 일깨우고, 유럽에서의 상호 인간이해를 위한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독일 통일 후 그리고 동유럽 공산정권 붕괴 후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에서 동·서유럽의 불자 4천여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유럽내 불교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독일 제 2공영방송인 체트데 에프(ZDF)는 '문화초점'이라는 주간프로그램에서도 독일 내의 불교상황을 상세히 소개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했다.

◇티벳불교 사원 건축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독일인 불자들.

강좌·도서 등 영향 불교 대중속으로
독일불교련·불교의 집 주요단체 등장

▲독일불교연합= 1955년 독일불교협회를 모태로 출발하여 1958년 독일불교연합으로 개칭된 독일 최대 불교단체. 현재 6만여명이 100여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꽃〉이라는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 해 두 차례 정기모임을 열고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불교계 활동을 점검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1992년에는 베를린 팔라이스 암 페스퉁스그라벤에서 '연합 창립 40주년 기념-불교의 날'을 개최해 독일에서의 불교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기도 했다.

▲베를린불교협회= 쿠르트 슈미트박사(1879~1975)가 1951년 창립한 단체. 현재 비영리 공익단체로써 약 1천여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베를린에 있는 크고 작은 불교단체 20여개와 종파를 초월해 교류하고 있으며, 협회 내에 개설된 도서관과 법당 그리고 공동세미나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독일불교계에서 가장 탄탄한 명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불교의 집= 파울 달케 박사가 개원한 독일 최초의 사찰. 1942년 나찌의 비밀경찰에 의해 대부분의 경전들이 압수당한 채 폐쇄됐다. 1957년 다시 개원한 이 사찰은 스리랑카 불교포교회인 '독일 달마회'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 단체는 수천 권의 장서로 가득한 도서관이 유명하다. 장서는 베를린시 과학·예술국의 지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1958년부터 이곳에는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불교강연회 법회 참선 독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 또 조용하고 풍광 좋은 숲속 언덕 위에 위치해, 달라이 라마가 베를린 방문시 꼭 찾는 사찰로도 유명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 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 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퇴재를 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 100일분을 드리겠습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8.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9. 류마티스나 관절염
10. 심장이나 방광에도 매우 좋습니다
11. 간이 나쁜사람
12.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13.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줍니다
14. 중풍에도 좋습니다
15. 고혈압, 저혈압
16.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7.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8. 눈을 맑게 해 줍니다
19. 불면증, 황달
20. 담즙 분비를 많이 해 줍니다
21.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잘 먹고 싸고 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쉼이

최고의 깨침이자 사랑인

-혁명중의 혁명-『하나한』- 비전중의 비전

食事를 진지(眞知)로
배설을 이바지(以波止)로
취침을 주무심(住無心)으로

見을 觀으로
聽을 請으로
접촉을 滿肸으로
呼吸을 숨(𤕤)으로
의식을 여의주로 다듬어

프라스틱 몸을 프리즘으로
요지경 마음을 조요경으로
富身 영혼을 當神으로

5박 6일 진진한 놀이 통해
애벌레 아닌 나비로 사는 비결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교의없이 가능하도록
언어 이전의 존재 자체 속에 담긴 신비 만끽
(자기감옥 탈출에서 대상과의 합일거쳐 스스로가 길이요 생명까지)

▶ 일시: 매월 셋째 월 15:00~토12:00(장소관계 1회 10명 통보받은 분만 가능)
▶ 장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팩스 885-1022
▶ 회비: 求救(99)만원에서 參蔘(33)만원까지 입금구좌 농협 111-12-336006

⊙ 창안자 엄시구님은 육사를 나와 월남전에서 피아의 시체를 끌어안고 인간을 해부하기로 결심한 후 30년간 오직 궁극과 현실을 여하히 쉽고 간결히 관통하느냐에 매진, 구름사이로 하늘 본지 20년 만에 구름열고 하늘땅 사는 법을 일반에 삼가 공개함.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새천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온누리 자비 광명(光明)으로
두루하신 부처님!
21세기를 향하여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현대결혼연구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혼인문화를 새로운 각도로 구상하고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큰 사랑으로 현대를 지켜봐
주십시요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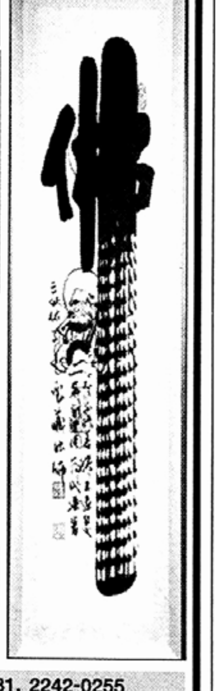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진년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